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다보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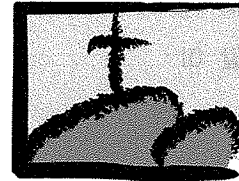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 나날 중에도
 때로는 건성으로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곧고 바름을 강조 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어느 날에도
 마음에서는 심한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들 틈에서 호호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없이 울고싶은 날이 있습니다
 재미난 영화를 보며 소리내며 웃다가도
 웃음끝에 스며드는 허탈감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아 도취에 빠져 스스로에 만족할 중에도 자신의 부족함이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 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한결 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여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고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다면, 그 모습 뒤에는
 분명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거짓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들을 놓아봅니다.
 그러한 과정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안에는, 새로운 비상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5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2월 26일
☎369-5077/525-3858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모르고 지나는 은혜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산 속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 뜨거운 땀방울을 걸어온 나그네는 너무 힘이 들어 더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걸음을 멈추고 풀 숲 아늑한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몹시 피곤했으므로 나그네는 눈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Calvary Church

그런데 그곳을 호랑이 한마리가 어슬렁 거리고 가다가 나그네를 발견하고 으르렁 거리며 나그네에게 덤벼려 하였습니다. 그 때 길가가 환해지면서 산 도적떼 한 패가 횃불을 들고 길을 지나게되었습니다. 환한 불빛을 본 호랑이는 혼비백산하여 으르렁거리며 도망을 쳤고, 호랑이의 포효에 놀란 산도적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산도적들 중의 하나가 도망을 치면서 호랑이를 향해 돌을 던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토끼가 한 마리가 돌에 맞아 기절하여 나그네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바탕의 소동이 지나간 후에 갑자기 숲 속에서 바람 스치는 싹~아 하는 소리가 났다. 이는 이 숲에 사는 구렁이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구렁이는 지금 요기를 하러 나온 참이었는데, 나그네를 발견한 것이였습니다. 나그네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구렁이는 그 옆에 큰 토끼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토끼를 잡아먹고 만족하여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곤하게 잠을 잔 나그네는 간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 것도 모른채,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깨어 기지개를 켜 후, 갈길을 부지런히 재촉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확인하고 아는 은혜보다 미처 알지 못하는 은혜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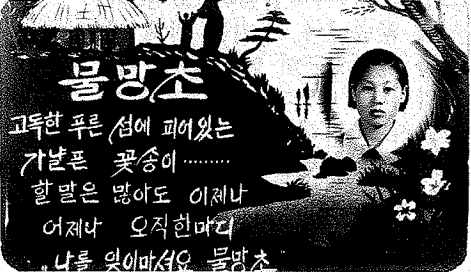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121:5)

◀딸아! 이런 남자친구와는 사귀지 마라▶

새치기를 하거나 끼어 들고도
 고맙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 친구와는 사귀지 마라.
 그런 친구는 절약, 노력, 자기개발을 통해 성공하려하지 않고
 약속빠른 방법만 생각하여 가족들을 고생만 시킨다.

◀그때 그랬지▶ 물망초 사진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 지금처럼 사진기가 흔하지 않던 시절, 사진관에 가면 물망초 詩가 적혀있는 한 쪽에 얼굴을 넣어 사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좋아했죠. 증명 사진을 찍으면 나뭇잎 속에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을 서비스로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너무 질게 덧 칠해진 삶의 현란한 색깔들을 깨끗이 지우고 흑백사진의 그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물망초
 고독한 푸른 섬에 피어있는
 가냘픈 꽃송이.....
 할 말은 많어도 이제나
 어제나 오직 한마디
 나를 잊어주세요 물망초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 회 의 기 도 Confession Pray		
동 서 의 선 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 찬 송 Hymn	28장	다 갈 이
*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7 (시편 65)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찬 송 Hymn	206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4:25-35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심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비제자도의 댓가	전병주 목사
특 송 Hymn		청 년 부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12월, 1월의 예배위원 ◆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주방	은식자가
26	김순자	김인희	6구역	
2	김종건	강동호	1구역	4남여
9	노은숙	강은미	2구역	3남여
16	박일영	강현정	청년부	4남여
23	이광의	경덕현	3구역	3남여
30	이규임	권정호	4구역	2남여

◆ 1월의 교회력 ◆

주 일	예배와 모임
2	신년, 성찬주일 송구영신예배(31)
9	학생부캠프
16	식사친교주일 연합제직세미나(20)
23	수요예배개강(26)
30	이삭줍기주일 선교회 정기회의(30)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사임> 전병주 목사. 30일(목) 출국
- 2005년도 봉사
 <구역장> 첫 구역예배시에 의논하여 1년동안 구역장으로 봉사하실 구역장을 구역
 식구들께서 자치적으로 세워주십시오. (첫 구역예배: 2월. 인도자 가정)
 <성가대> 1-6월 “은 십자가 성가대”. 7월-12월 “나무심자가성가대”
 *상반기동안 “나무심자가 성가대”는 ‘안식월’로 보냅니다
 <1월의 “은 십자가 성가대”>
 첫째주일(2일): 4남여선교회 둘째주일(9일): 3남여선교회
 셋째주일(16일): 4남여선교회 넷째주일(23일): 3남여선교회
- 2004년 “송구영신예배” <일시> 31일(금) 밤 11시
 *지난 시간의 덧없음에 잠기면 허무함만 얻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는 성숙과
 성취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젊음은 기대감에서 얻는 덤일 것입니다.
- “수요예배 이웃교회 참석의 달” <12월 29일-1월 19일>
 *금주 수요예배부터 한달동안은 우리교회에서 체험치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이웃교
 회 예배를 참석하여 누리보십시오
- “2004년 봉사자 감사와 자축의 밤” <일시> 31일(금) 저녁 5:30분 <장소> HALL
 *올 한해동안 교회 여러부문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생명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께는 감사의 자리로, 봉사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스스로에게는 자축하며 서
 로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꼭 가족(부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예배, 교육, 성가대, 관리, 주방봉사, Tea Time 봉사, 주차관리, 새신자안내, 선교, 심
 방, 후보비치, 꽃꽂이, 교회당정리, 화장실청소, 결식자봉사, 밀알장애봉사, 통역, 도서
 실관리, 구역장, 인도자, 구역담당)

◀ 착한 시인들 ▶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
 작자미상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길 위에 떨어진 휴지를 주웠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을 향해 바빠 걸었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 앞에서 더 약해졌고
 아픈 사람 곁에서 더 아파했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을 품을 때는
 더 슬피 울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은 알지만
 당신의 이름은 모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바보같이 예수 믿었다고 세상이
 알아 주지 않습니다. 바보 같이
 교회 다녔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보같이 살았
 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계
 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방
 주를 차근차근히 만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 가족을 홍수에서
 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난
 에도 바보처럼 순종하여 배를
 지었던 노아처럼...
 올 한해, 바보같은 교회의 성도
 로 지내온 아름다운 우리들입니
 다.